

Etude 1. 기본독해기술

1-1 욕의 활용

제시문의 논지는 욕을 포함하는 문장 속에 숨어 있다.

욕 문장의 규칙

1. 욕을 먹는 대상이 있어 그것이 지칭이 될 것
2. 그 욕이 제시문 내에서 가장 비판의 수위가 높은 문장일 것

예시) 2012학년도 사회계열 제시문 (가)

새로운 종교를 창설하려는 여러 번의 시도가 실패로 끝난 것은 상당히 이른 시기에도 그리스인들이 높은 수준의 문화를 지니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것은 또한 그리스에는 이미 일찍부터 신앙과 희망이라는 단 하나의 처방으로 치유될 수 없는 다양한 고통을 지닌 다양한 개인들이 존재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피타고라스, 플라톤, 엠페도클레스 그리고 이들보다 훨씬 이전의 오르페우스교의 열광자들이 새로운 종교를 세우고자 했다. 앞의 두 사람은 진정으로 종교 창시자의 영혼과 재능을 지니고 있어, 이들이 실패했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들은 그저 종파들을 만들어 내는 데 그치고 말았던 것이다. 한 민족 전체의 종교개혁이 실패하고 종파들만이 머리를 들면, 언제나 우리는 그 민족이 이미 자체 내에 다양성을 지니고 있으며 거친 무리 본능이나 윤리적 관습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것이라고 추론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의미심장한 동요 상태를 사람들은 흔히 윤리의 타락이나 부패라고 비난하지만, 실제로 이것은 알이 성숙하여 껍질이 깨질 때가 가까워졌다는 것을 알려준다. 루터의 종교개혁이 북유럽에서 성공했다는 것은, 북유럽이 남유럽에 비해 뒤쳐져 있었으며, 상당 부분 같은 유형과 같은 색깔의 욕구를 지니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 개인이나 그 개인의 새로운 사상이 보편적이고 절대적으로 작용하면, 이는 그 영향을 받는 대중들이 그만큼 천편일률적이고 저급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그에 대한 반작용은, 만족되고 관철되어야 할 반대의 요구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을 알려준다. 거꾸로 힘과 지배욕이 매우 강한 천성을 지닌 인물이 단지 종파에 국한된 미약한 결과를 낳는 데 그치는 경우, 이로부터 그 문화의 수준이 매우 높다는 것을 추론해낼 수 있다. 이는 예술과 인식의 영역에도 적용될 수 있다.

〈문제 1〉 한 사회에 새로움이 부상하는 과정에서 다수가 수행하는 역할을 중심으로 제시문 (가), (나), (다)의 논지를 비교하시오. (1000자 안팎, 50점)

‘한 개인이나 그 개인의 새로운 사상’은 ‘새로움’이고, ‘대중’은 ‘다수’이다. 우리는 저 욕 문장을 ‘새로움을 보편화 절대화 시키는 대중은 천편일률적이고 저급하다’로 번역할 수 있다. 이 문장이 바로 이 제시문의 논지이다. 이 문장을 대우로 뒤집어 보면, ‘바람직한 다수는 새로움을 보편화, 절대화시키지 말아야 한다’가 된다.

✓ **욕의 활용 Trend**

2015학년도 이전 : 한 제시문에 수위가 매우 높은 하나의 욕 문장이 들어 있었다. 이 문장을 대우로 뒤집는 것이 핵심이었다.

2015학년도 이후 : 한 제시문에 수위가 낮은 여러 가지 욕 문장이 들어 있었다. 이 문장들을 굳이 대우로 뒤집지 않아도 상관 없었다.

욕의 활용 연습 문제

욕 문장을 활용하여 다음 제시문의 논지(들)를 뽑아내시오.

1. 2011학년도 사회계열 제시문 (가)

최고의 탁월한 이성과 반성 능력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 어느날 갑자기 이 세상에 던져졌다고 상상해 보자. 그는 어떤 일들이 연달아 발생하는 것을 직접 관찰하게 된다. 그렇지만 그 이상의 어떤 것도 발견해낼 수 없을 것이다. 그는 이성적으로 추론해서 원인과 결과의 관념에 도달할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자연의 작용을 이끌어가는 특별한 힘은 감각에 의해서는 결코 포착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한 사건이 다른 사건에 앞서서 일어났다고 해서 앞의 사건이 원인이고 뒤의 사건은 결과라고 결론짓는 것도 합당하지 않다. 그 두 사건의 결합은 임의적이고 우연적일 수 있다. 뒤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앞의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추론할 만한 근거가 없을 수도 있다. 요컨대 앞에 예로 든 그 사람이 계속 경험을 쌓아나가지 않는다면, 그는 어떠한 사태에 관해 추측할 수도 추론할 수도 없을 것이며, 그의 기억이나 감각에 직접 주어진 것을 넘어선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결코 확신할 수 없을 것이다.

이제 앞에서 말한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좀 더 경험을 쌓고 오래 살아서 유사한 대상들 혹은 사건들이 연달아 일어나고 있음을 관찰했다고 상상해 보자. 이 경험으로부터 그가 얻게 되는 바는 무엇인가? 그는 한 대상이 드러나는 것을 보고 그것의 원인이 되는 다른 대상의 존재를 즉각 추리한다. 그러나 그가 경험을 총동원한다고 해도 그는 한 대상이 다른 대상을 산출하는 비밀스러운 힘에 대한 관념이나 지식은 전혀 가질 수 없다. 또한 어떠한 논리적 과정을 통해서도 원인이 되는 대상을 추리해내지 못할 것이다. 그럼에도 그는 고집스럽게 두 대상이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결합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 그리고 비록 자신의 이해력이 이렇게 추리하는 데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누군가 그에게 확신시켜주더라도, 그는 동일한 사고 과정을 계속해나갈 것이다. 그에게는 이런 결론을 내리게 하는 어떤 다른 원리가 있다.

2. 2013학년도 인문계열 제시문 (가)

강녕의 용반, 소주의 등위, 향주의 서계는 모두 매화 산지이다.

어떤 이는 “매화는 휘어져야 아름답고 곧으면 맵시가 없으며, 틀어져야 아름답고 똑바르면 볼품이 없으며, 성기어야 아름답고 뻑뻑하면 자태가 없다”고 말한다. 그렇다. 하지만 문인화가들은 마음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그러한 기준으로 천하의 매화를 평가한다고 큰 소리로 분명하게 말하지는 못한다. 또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곧은 것을 베고 뻑뻑한 것을 쳐내고 똑바른 것을 잘라 매화를 병들게 하고 매화를 빨리 죽게 하는 일을 업으로 삼아 돈을 벌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매화를 틀어지게 하고 성기게 하고 휘어지게 하는 것은 돈 벌기에 급급한 우둔한 사람들이 그 머리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대신 문인화가들은 자신의 괴벽한 취미를 매화 파는 사람에게 확실하게 알려서, 똑바른 것을 베어 곁가지를 키우고 뻑뻑한 것을 쳐내 어린 가지를 죽이고 곧은 것을 잘라 생기를 막음으로써 높은 값을 구하게 하니, 강(江: 장쑤성)과 절(浙: 저장성) 지방의 매화는 모두 병이 들었다. 문인화가들이 끼친 폐해가 이 정도로 심할 줄이야!

나는 300개의 매화 분재를 샀는데 모두 병들었고 온전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 3일 동안 울고 나서 그것들을 치료해주고 풀어주고 순리대로 살게 해주겠다고 맹세한 뒤, 화분을 깨뜨려 모두 땅에 묻어주고 동여맨 끈을 풀어주었다.

5년을 기약으로 반드시 그것들을 회복시키고 온전하게 해주겠다고 다짐했다.

3. 2015학년도 인문계열 제시문 (나)

찰스 다윈은 자연선택이론을 통해 해부학적, 행동적, 그리고 사고와 의식, 감정을 포함하는 정신적 측면에서 광범위한 동물들 사이에 진화적 연속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어렵듯이 바라봤을 때는 우리 자신과 현격하게 달라 보이는 종들이 실제로는 우리와 그다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결코 급진적 의견이 아니다. 만일 인간이 특정한 기술 내지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면 다른 동물들 역시 이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지 않다면 인간의 지성과 지각 능력, 감정, 그리고 윤리의식이 어디에서 기원하겠는가? 종들의 서열관계에 관한 개념은 다른 동물에 대한 비인도적 처우를 정당화하는 데 사용된다. 게다가 그것은 서로 다른 종들을 비교하는 데 있어서도 실질적으로는 무의미하다. 예를 들어, 칩팬지가 조이스틱이나 컴퓨터를 사용해 미로찾기를 하는 것을 본 사람은 “그것 봐, 칩팬지가 새보다 영리해”라고 말한다. 하지만 새가 칩팬지보다 더 정교한 도구를 만들어 사용하는 것을 보고 “그것 봐, 새가 칩팬지보다 영리해”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어떤 종이 다른 종보다 더 영리하다는 점을 입증하려고 하면 우리는 실제 많은 것을 얻어내지 못한다. 특정 종의 개체들은 자신들의 생존에 필요한 그 종 특유의 행동을 하는 것뿐이다. 실제로 검증 가능한 연속값으로서의 지능을 언급하는 대신, 우리는 광범위한 친족 관계상에서 우리와 가깝거나 비슷하게 생긴 종들이 우리와 관계가 멀거나 덜 비슷하게 생긴 종들보다 더 영리하다고 주장하는 경향이 있다. 종(種)우월주의는 무책임한 사고로, 우리로 하여금 과학이라는 이름으로(실제로는 인간의 이름으로) 동물들을 학대하 죽이는 것을 정당화한다. 우리가 다른 동물들보다 더 특별하고 우월하며 가치 있다고 선포하는 순간, 우리는 그들의 삶에서 눈을 돌리는 것이 된다. 그들의 고통에 우리의 감각과 감정을 닫아 버리는 것이다. 인간의 편협한 인류애적 관점을 정당화하기 위해, 있는 그대로 존중해달라는, 인간이 원하는 방식대로 만들지 말아 달라는 그들의 간청에 귀를 닫는 것이다.

연습문제 정답

1번

그럼에도 그는 **고집스럽게** 두 대상이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결합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

- 두 대상 간 인과의 관계가 있다는 것은 고집이다
- 이는 당연하다 - 두 대상 간 인과의 관계가 없다는 것은(대우)

2번

매화를 틀어지게 하고 성기게 하고 휘어지게 하는 것은 돈 벌기에 급급한 **우둔한** 사람들이 그 머리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 돈을 목적으로 매화에 손을 대는 사람은 우둔하다
- 이는 현명하다 - 돈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매화를 자연 그대로 놓아 두는 것은 (대우)

3번

욕 1. 종(種)우월주의는 **무책임한** 사고로

욕 2. 인간의 **편협한** 인류애적 관점

1-2 fold-unfold(뒤집기)

연세대 3자비교 제시문은 항상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 있다.



두 제시문은 사과이고 한 제시문은 배인 것이다. 즉 두 제시문은 패거리를 이루고 있고 한 제시문은 왕따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가령 제시문 가,나,다를 과일의 관점에서 비교분석하라고 할 경우 가장 먼저 떨어져 나가야 할 것은 배일 것이다. 왜냐하면 배가 종류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서 사과끼리 서로 색깔이 다르다고 할 것이다. 이는 우리가 ‘절대구조’ 에서 충분히 살펴본 내용이다. 여기에서는 깊이 설명하고자 하는데, 사과와 사과 제시문끼리의 차이가 결코 색깔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예컨대, 앞서 유제를 풀었던 2015학년도 인문계열 제시문 (나)를 보자. 우리는 해당 제시문에서 욕을 통해 다음의 두 가지 논지를 뽑아내었다.

2015학년도 인문계열 제시문 (나)

찰스 다윈은 자연선택이론을 통해 해부학적, 행동적, 그리고 사고와 의식, 감정을 포함하는 정신적 측면에서 광범위한 동물들 사이에 진화적 연속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어렵듯이 바라봤을 때는 우리 자신과 현격하게 달라 보이는 종들이 실제로는 우리와 그다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결코 급진적 의견이 아니다. 만일 인간이 특정한 기술 내지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면 다른 동물들 역시 이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지 않다면 인간의 지성과 지각 능력, 감정, 그리고 윤리의식이 어디에서 기원하겠는가? 종들의 서열관계에 관한 개념은 다른 동물에 대한 비인도적 처우를 정당화하는 데 사용된다. 게다가 그것은 서로 다른 종들을 비교하는 데 있어서도 실질적으로는 무의미하다. 예를 들어, 칩팬지가 조이스틱이나 컴퓨터를 사용해 미로찾기를 하는 것을 본 사람은 “그것 봐, 칩팬지가 새보다 영리해”라고 말한다. 하지만 새가 칩팬지보다 더 정교한 도구를 만들어 사용하는 것을 보고 “그것 봐, 새가 칩팬지보다 영리해”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어떤 종이 다른 종보다 더 영리하다는 점을 입증하려고 하면 우리는 실제 많은 것을 얻어내지 못한다. **특정 종의 개체들은 자신들의 생존에 필요한 그 종 특유의 행동을 하는 것뿐이다.** 실제적으로 검증 가능한 연속값으로서의 지능을 언급하는 대신, 우리는 광범위한 친족 관계상 에서 우리와 가깝거나 비슷하게 생긴 종들이 우리와 관계가 멀거나 덜 비슷하게 생긴 종들보다 더 영리하다고 주장하는 경향이 있다. 종(種)우월주의는 무책임한 사고로, 우리로 하여금 과학이라는 이름으로(실제로는 인간의 이름으로) 동물들을 확대하 죽이는 것을 정당화한다. 우리가 다른 동물들보다 더 특별하고

우월하며 가치 있다고 선포하는 순간, 우리는 그들의 삶에서 눈을 돌리는 것이 된다. 그들의 고통에 우리의 감각과 감정을 닫아 버리는 것이다. 인간의 편협한 인류애적 관점을 정당화하기 위해, 있는 그대로 존중해달라는, 인간이 원하는 방식대로 만들지 말아 달라는 그들의 간청에 귀를 닫는 것이다.

욕 1. 종(種)우월주의는 무책임한 사고로

욕 2. 인간의 편협한 인류애적 관점

이 문제의 발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문제 1>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 대한 제시문 (가), (나), (다)의 논지를 비교, 분석하시오. (1,000자 안팎, 50점)

<문제 2> 제시문 (라)의 도표들을 통합적으로 해석하고, 이를 제시문 (나)와 (다) 각각의 입장에 근거하여 평가하시오. (1,000자 안팎, 50점)

1번 문제에서 가,나,다 2번 문제에서 나,다가 나왔으니 가가 배라는 것은 ‘절대구조’에서 이미 다루었던 내용이다. 그러나 나와 다의 차이가 단순히 기준 하나에 그치지 않고 이렇게 복수의 비교기준이 등장한다는 것이다. 나에서 종 우월주의가 무책임한 것이면 다에서는 무책임하지 않고, 나에서 인류애적 관점이 편협한 것이면 다에서는 인류애적 관점이 그 자체로 목적인 것이다. 이것만 해도 비교기준이 두 개가 나왔는데, 제시문 다를 살펴보면 더 나오게 된다. 그런데 비교기준을 뽑는 방식이 나를 뒤집어서 다를 추론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뒤집기’의 형식이다. 따라서 이 방법에 fold-unfold기법이라는 이름을 붙인다.

동물들은 자의식적이지 않으며 단지 목적에 대한 수단으로서 존재할 따름이다. 그 목적은 **인간이다.(인간>동물, 종 우월주의 인정)** 우리는 “왜 동물들이 존재하는가?”라고 질문할 수 있다. 하지만 “왜 인간이 존재하는가?”라는 것은 무의미한 질문이다. 동물에 대한 우리의 의무는 인류에 대한 간접적인 의무일 뿐이다. 동물의 본성은 인간의 본성과 유사성을 가진다. 그리고 우리는 동물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수행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인류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수행한다. 따라서 만일 개가 그의 주인에게 오랫동안 충실하게 봉사한다면, 그의 봉사는 인간의 봉사와 마찬가지로 보상을 받을 가치가 있다. 그리하여 개가 더 이상 봉사가 어려울 정도로 늙어버리더라도, 그 주인은 개가 죽을 때까지 개와 함께 해야만 한다. 그러한 행동은 인간에 대한 우리의 필수적인 의무들을 지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동물의 어떤 행동이든 인간 행동과 유사하고 동일한 원리로부터 나온다면, 우리는 동물에 대한 의무를 가진다. 왜냐하면 그럼으로써 우리는 인간에 대한 상응하는 의무를 함양하기 때문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신의 개가 더 이상 봉사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것을 썩 죽인다면, 그의 행동은 비인간적인 것이며 그가 인류에 대해 보여주어야 하는 자신의 인간성에 해를 입히는 것이다. 그가 자신의 인간적인 감정을 구태여 억눌러야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는 동물에게 친절하게 대해야만 한다. 동물에게 잔인한 사람은 사람들을 대하는 데에서도 거칠어지기 때문이다. 우리는 동물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 사람의 마음을 평가할 수 있다. 라이프니츠는 관찰 목적으로 아주 작은 곤충을 이용하고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나뭇잎 위에 다시 되돌려놓았다. 그것이 그의 행동으로 인한 어떠한 해도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아무런 이유 없이 그러한 생명체를 파괴한다면 미안한 일이라고 느꼈을 것이다. 그것은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말없는 동물들에 대한 자애로운 감정은 **인류에 대한 인간적 감정을 발전(인류애적 관점 발전)**시킨다.

첫 문장의 붉은 색 볼드체 부분에 집중해 보면 다에서는 동물들이 자의식적이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를 fold의 반대인 unfold로 뒤집어 보면 제시문 나에서는 동물들을 자의식적인 존재로 주장하고 있을 것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제시문 나는 이렇게 말한다.

특정 종의 개체들은 자신들의 생존에 필요한 그 종 특유의 행동을 하는 것뿐이다.

그리고 인간이 목적, 동물은 수단이라 말하면서 나에서 거부하는 종 우월주의를 다는 인정하고, 인류애적 관점을 발전시킨다고 말하면서 나에서 편협하다고 말하는 인류애적 관점을 다는 발전시킨다. 이렇게 나와 다를 가르는 비교기준이

- 1) 인류애적 관점에 대한 관점 차이
- 2) 종 우월주의에 대한 관점 차이
- 3) 동물의 자의식 여부에 대한 시각 차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쏟아져 나온다. 그리고 요즘 연세대를 불기 위한 합격의 필수 키워드는 바로 이렇게 fold-unfold기법을 활용하여 많은 비교기준을 잡아내는 데에 있다.

Fold-unfold 기법 연습 문제

1. 2011학년도 인문계열

발문은 다음과 같다.

〈문제 1〉 제시문 〈가〉, 〈나〉, 〈다〉에 나타난 죽음에 대한 태도를 비교하시오. (1,000자 안팎, 50점)

〈문제 2〉 제시문 〈가〉, 〈다〉 각각의 입장에 근거하여 제시문 〈라〉의 실험 결과를 해석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쓰시오. (1,000자 안팎, 50점)

〈가〉에서 매장 풍습이 풍요롭다면 〈다〉에서는 어떠하겠는가? 〈다〉를 보지 않고 답하라.

인간은 생명체로서의 본능이 약화된 존재이므로 동물계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모든 종과 대조해 볼 때 부인할 수 없는 특수성을 갖고 있다. 동물 집단과 그 집단 내 의사소통, 연대성, 공격성에 대해 아무리 연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특수성이 덜해지는 것은 아니다. 인간의 이러한 특수성이란 이 세상에서 자신의 고유한 삶을 넘어서서 생각하거나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인간의 타고난 능력이다.

이런 이유로 인해 죽은 자들을 매장하는 것은 인간됨의 근본 현상이 된다. 매장은 죽은 자를 신속하게 숨기는 것이 아니다. 또 그것은 무겁고 영원한 잠에 빠져 꼼짝하지 못하는 자에게서 받은 충격적인 인상을 재빨리 지우는 것도 아니다. 그 반대로 인간은 상당한 노동과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죽은 자와 함께 머무르고자 하며 죽은 자를 산 자 가운데 꼭 붙잡아 놓고자 한다. 우리는 고대의 무덤들에서 발견되는, 죽음을 애도하는 여러 형태의 유물들을 보면서 그 **풍요로움에 놀란다**. 이런 유물들은 인간 존재를 영구히 보존하는 방식이다. 그것들은 죽음이 끝이 아님을 보여준다. 우리는 그것의 가장 근원적인 의미를 파악해야 한다. 이는 종교적인 사안도 아니고 종교를 세속적인 관습이나 도덕으로 전이시키는 문제도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인간됨을 이루는 근본이며 그것에서 인간 실천의 특수한 의미가 파생된다. 우리가 여기서 다루는 것은 자연 질서의 궤도에서 벗어난 생활양식이다. 가령 새들에서 관찰할 수 있는 삶의 본능도 놀랍지만 그 새들이 같은 종에 속하는 새들의 죽음에 대해 기피하거나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행태는 더욱 놀라운 것이다. 이러한 대비는 인간이 생존에 대한 자연적인 삶의 본능을 어떻게 거스르기 시작했는지를 잘 설명해 준다.

2. 2013학년도 인문계열

발문은 다음과 같다.

〈문제 1〉 제시문 (가), (나), (다)에 공통된 주제어를 찾고,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 (가), (나), (다)를 비교하시오. (1,000자 안팎, 50점)

〈문제 2〉 제시문 (라)의 의미를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제시문 (가)의 논지를 평가하시오. (1,000자 안팎, 50점)

(다)에서 아무런 티도 안 나는 것이 아름답다면 (나)에서는 어떤 것이 아름답겠는가? (나)를 보지 않고 답하라.

르네상스 시대 궁정의 여성에게는 무엇보다도 ‘우아함’이 요구되었다. 우아하게 보이기 위해 가장 조심하고 피해야 할 것은 ‘꾸민 듯함’이다. ‘꾸민 듯함(아페타티오네)’은 ‘아무런 티도 안 냄(스프레짜투라)’과 대비된다. ‘우아함’을 훌륭하게 연출하는 최대의 요령은 이 ‘아무런 티도 안 냄’에 있다.

‘우아함’을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아무런 티도 안 냄’이라고 한다면 설명할 수 있다. ‘아무런 티도 안 냄’이란 ‘기교 를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하면서 마치 아무런 노력이나 생각도 하지 않은 채 말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다. 그럴 때 ‘우아함’이 가장 잘 드러나게 된다. 타인이자 동료인 궁정인들의 시선을 과도할 정도로까지 의식하고 계산한 끝에 나오는 연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결코 표면에 드러내서는 안 된다. 주체가 연기하는 ‘아무

런 티도 안 냄’이라는 ‘태도(마니에라)’의 이상은 타자의 시선에 의해 구성된다. 그러므로 자연스러움이란 인위적인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바로 이 패러독스에 ‘아무런 티도 안 냄’의 본질이 있다.

특히 여성은 그 태도나 몸가짐에서 가능한 한 ‘아무런 티도 안 나게’ 행동할 필요가 있다. 즉 섬세하게 갈고 닦은 정신을 지니면서도 늘 아무런 궁리나 노력도 하지 않은 듯이 보여야 하는 것이다. 줄리아노의 말처럼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더욱 아름다움에 신경을 쓰는 게 당연하고도 정당한 일”이기에 여성은 남성보다 더욱 교묘하게 이 패러독스를 연기해야 한다.

Tip 작은 따옴표의 힘

논술 제시문에 있어서 작은 따옴표는 주제를 강조할 때 쓰거나 주제어를 강조하는 데 쓰이므로 작은 따옴표가 있다면 비교 기준과 대부분 직결되기 때문에 항상 유념해야 한다.

연습문제 정답

1. 간소해야 한다.
2. 티가 나야 한다.

Etude 2. SVO 기법 Stage 1

동사

SVO 기법이란 제시문을 문장성분 단위로 쪼개서 가장 섬세하고 정교한 비교를 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독해기술로, 비교 및 과제해결형 문제의 해결 등에 쓰인다.

SVO 기법의 규칙

1. O 자리에는 문제 전체의 주제가 온다
2. S 자리에는 문제가 주면 문제가 주는 주어, 문제가 주지 않으면 그냥 인간이 온다
3. S 자리에 들어갈 인간 주어가 두 명 이상일 경우에는 SVO도 두 번 이상 쓴다
4. O 자리에 들어갈 말이 추상명사이면 추상명사의 객체가 되는 인간까지도 같이 온다
5. V와 O 사이에는 적절한 전치사를 넣을 수 있다.

위의 다섯 가지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SVO 기법은 성립할 수 없다.

Caution

‘V’ 를 찾을 때 한국어의 동사, 즉 ‘XX하다’ 로 끝나는 것을 찾으면 안된다.
‘영어의 동사’ 를 찾는 것이다.

결작 아닌 것은 결작과 결작과를 매개한 것이다.

한국어에서는 ‘것이다’ 가 동사이지만, 이를 영어로 번역해 보면
Not masterpieces mediate(매개) masterpieces (결작 아닌 것은 결작을 매개한다)
와 같은 문장이 되므로 ‘매개’ 가 본 과에서 의미하는 V(동사) 인 것이다.

〈예제〉

문제 발문

한 사회에 새로움이 부상하는 과정에서 다수가 수행하는 역할을 중심으로 제시문 (가), (나), (다)의 논지를 비교하시오. (2012학년도 사회계열)

S(주체) 는 발문에 주어진 대로 ‘다수’이며, O(목적)자리에는 문제 전체의 주제가 와야 하므로 ‘새로움’이 와야 한다. V(역할) 자리에는 제시문으로부터 주로 2글자의 한자어로 된 동사를 찾아 채워준다.

이를 테면, 제시문 [나] 에서 동사를 모두 찾아보자.

제시문 (나)

예술에서는 발전 대신에 항상 독창이란 것이 가치 평가의 기준이 되어 있다. 독창이란 것은 자기 완결적인 것을 의미한다.

각개의 예술의 세계는 제각기 독립한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서 혼자서 완결되는 세계다. 그러면 고전과 고전과의 사이에 **절단을 이어가는** 것, 즉 예술의 역사의 비연속의 연속은 무엇일까?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 걸작 아닌 것, 즉 범작이나 졸작의 문제로 다시 한 번 돌아갈 필요에 직면한다. 예술사에 있어서 걸작 아닌 것은 예술적인 **전승**의 수단이 된다. 예술에 있어서 전승은 걸작 아닌 것을 통하여 된다고 말할 수가 있다. 이러한 예를 우리는 아류(亞流)라는 현상에서 들 수 있다. 아류란 걸작의 **모방**이다. 모방은 흔히 걸작을 **모독**하고 그것을 **개악(改惡)**한다. 그러면 아류란 걸작의 파괴지 그 전승이 되느냐고 할지 모르나, 전승이란 이러한 **모독**을 통하여 행하여지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사람은 아류에 전승된 걸작에 대하여 분명히 그 모독을 책(責)한다. 그러나 아류에 대한 이 비난 속에는 걸작에 작(作)한 **존경**이 숨어있음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

이상하게도 모독을 통하여 그것의 존경에 도달하는 것은 종교에서 잘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사람은 배신자가 신을 모독했다고 신을 경멸하지는 않는 것을 잘 안다. 모독을 죄악이라고 느끼는 심리 속에는 항상 신에 대한 신성한 **숭양**이 들어있는 법이다. 이 숭양에 의하여 종교에서 사람들이 다시 신에게로 **일보 접근**하는 것과 같이, 사람들은 역시 걸작으로 **한 걸음 다가서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아류는 사람들로 하여금 걸작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즉 걸작 아닌 것은 걸작과 걸작과를 **매개**한 것이다.

S 발문에 의해, '다수' 자리	V	O 발문에 의해, 문제 전체의 주제인 '새로움' 자리
	모방 모독 개악 존경 숭양 전승 일보 접근 한 걸음 다가서다 인도 매개 절단을 이어가다	

SVO를 활용하여 동의어 치환하기

학생들은 이 지문에서 무엇을 다수로 읽어야 할지, 무엇을 새로움으로 읽어야 할지, 즉 동의어치환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SVO기법을 이용하면 동의어치환을 확실하게 해낼 수 있다.

- 무엇이 무엇을 모방하는가? 아류가 걸작을
- 무엇이 무엇을 모독하는가? 아류가 걸작을
- 무엇이 무엇을 개악하는가? 아류가 걸작을
- 무엇이 무엇을 존경하는가? 아류가 걸작을
- 무엇이 무엇을 숭양하는가? 아류가 걸작을
- 무엇이 무엇을 전승하는가? 아류가 걸작을
- 무엇이 무엇에게 일보 접근시키는가? 아류가 걸작에게
- 무엇이 무엇에게 한 걸음 다가서게 하는가? 아류가 걸작에게
- 무엇이 무엇에게 인도하는가? 아류가 걸작에게
- 무엇이 무엇을 매개하는가? 아류가 걸작을
- 무엇이 무엇의 절단을 이어가는가? 아류가 걸작의

따라서 '아류' 는 곧 다수를 의미하며, '걸작' 은 곧 새로움을 의미한다.

S 다수 자리	V	O 새로움 자리
아류 (=결작 아닌 것, 범작, 졸작)	모방 모독 개악 존경 승양 전승 일보 접근 한 걸음 다가서다 인도 매개 절단을 이어가다	결작 (=고전, 독창)

SVO를 활용하여 비교기준 잡아내기

또한, SVO를 활용하면 비교기준을 쉽게, 그것도 간결하고 명확하게(precisely)잡아낼 수 있다.

우선, SVO를 활용하여 비교기준을 잡아내려면 ‘단어의 통일’ 이 필요하다.

이를 테면, 모방, 모독, 개악은 모두 같은 뜻이다. 모독과 개악은 모방의 일종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방만 남기고 모독과 개악은 지운다.

존경과 승양 역시 마찬가지로, 존경만 남기고 승양은 지운다.

‘전승, 일보 접근, 한 걸음 다가서다, 인도, 매개, 절단을 이어가다’ 역시 모두 같은 뜻이므로 대표격의 단어인 ‘전승’ 만을 남긴다.

따라서 (나)의 SVO 관계가 이렇게 정리된다.

S 다수 자리	V	O 새로움 자리
아류 (=결작 아닌 것, 범작, 졸작)	모방 존경 전승	결작 (=고전, 독창)

이와 마찬가지로의 과정을 제시문 (다)를 가지고 해 보자. 우리는 이미 2번문제 발문으로 인해 제시문 (가)가 왕따 제시문이며 (나,다)는 패거리 제시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Etude 1에서 다룬 ‘육과 대우’ 를 통해서 제시문 (가)의 논지가

“바람직한 다수는 새로움을 보편화, 절대화하지 않는다” 임을 알고 있다. 따라서 ‘나,다’ 를 비교하는 비교기준을 SVO를 통해 잡고자 한다.

제시문 (다)

사람이 어떤 주제에 관해 명상할 때, 그에게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또 다른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그렇게 자꾸 아이디어를 내고 그걸 다시 지우고 하는 과정을 되풀이하다가 그는 마침내 문제의 해결책을 붙잡게 된다. 그리고 이순간부터 그는 희미한 빛에서 환한 빛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이는 역사에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오래된 호기심이 막연하게 예감하고 있던 어떤 거대한 개념을 한 사회가 정교하게 만들려고 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과학이 그러한 호기심, 예컨대 세계에 대한 기계론적 설명을 발전시키고 구체화하기 이전에 말이다. 아니면 한 사회가 야심적으로 꿈꿔온 거대한 정복을 구현하려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사회 내의 인간 활동이 그 야망, 예컨대 증기를 이용한 생산기계, 운송수단, 항해수단을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이전에 말이다. 우선 사람들(다수이다! 다수가 무엇을 하는가?)에게 제기된 문제가 온갖 모순적인 **창안**과 **상상**을 불러일으킨다. 그것들은 여기저기서 나타났다가 또 금방 사라진다. 그러다가 어떤 명료한 해석틀이나 편리한 기계가 등장하기에 이르는 것이다. 이것은 **그 이전의 모든 것들을 잊게** 만든다. 이후로는 그것이 고정적인 기반으로 이용되면서 그 위에서 궁극적인 **발전**과 **완성**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진보는 일종의 집단적인 **성찰**이다. 거기에는 하나의 고유한 뇌가 없다. 그것은 오히려 창안자들의 무수한 뇌 사이에서 **모방** 덕분에 생겨나는 **연대**에 의해 가능해지는 것이다. 여기서 새로운 발견은 문자로 **고정**되어 거리나 시간의 간극을 뛰어넘어 **전달**될 수 있게 된다. 이는 기억의 바탕을 구성하는 이미지들이 개인의 뇌 속에서 고정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리하여 사회적 진보는 개인적 진보와 같이 두 가지 절차, 즉 **대체**와 **축적**을 통해 일어난다. 발견이나 창안 가운데 어떤 것들은 대체 가능하고, 또 어떤 것들은 축적 가능하다. 그로부터 논리적인 투쟁과 논리적인 결합이 생겨난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원리를 채택하고자 하며, 그것으로 역사의 모든 사건들을 설명하는 데 별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본다.

S(다수 자리)	V	O(새로움 자리)
사람들 창안자들	창안 상상 발전 완성 이전의 모든 것들을 잊게, 대체 모방, 연대 전달, 축적	어떤 명료한 해석틀이나 편리한 기계 (사회적) 진보

마찬가지로 동의어를 통일하여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S(주체) 다수 자리	V(역할)	O(목적) 새로움 자리
사람들 창안자들	창안 대체 모방 전달	어떤 명료한 해석틀이나 편리한 기계 (사회적) 진보

(나)와 (다)의 동사를 비교해 보자.

S 다수 자리	V	O 새로움 자리
아류 (=결작 아닌 것, 범작, 졸작)	모방 존경 전승	결작 (=고전, 독창)

S 다수 자리	V	O 새로움 자리
사람들 창안자들	창안 대체 모방 전달	어떤 명료한 해석들이나 편리한 기계 (사회적) 진보

- 모방은 (나)와 (다) 모두에 있으므로 쌍으로 지운다.
- 전승은 (나)에는 전승, (다)에는 ‘전달’로 역시 모두 있으므로 쌍으로 지운다.
- 우리는 (가)의 논지가 새로움의 보편화, 절대화를 거부하는 것이었음을 안다. 이 때, 새로움을 존경하는 것은 새로움을 절대화하는 것에 해당한다.
또한, 새로움이 그 이전의 것을 대체하고 자리잡는 것은 새로움을 보편화하는 것에 해당한다.
마치 스마트폰이 등장하고 2G 폰은 잊혀지는 현상을 스마트폰의 보편화라 부르는 것에 빗대어 생각해 보자.

따라서 이들은 각각 절대화, 보편화로 동의어치환되어 가에서 하지 말라는 것이라는 공통점으로 역시 쌍으로 지워진다.(물론, 나에서는 절대화하고 다에서는 보편화하는 것으로 차이점으로 잡아내도 무리가 되지 않는다)

모두를 지우고 나면 남는 것은 창안뿐이다.

따라서 우리는 나와 다를 나누는 비교기준을 이렇게 설정한다. 앞뒤로 주어와 목적어를 붙인 뒤 맨 끝에 ‘여부’ 라는 단어만 기계적으로 붙이도록 한다.

다수의 새로움 **창안** 여부

SVO 기법 - 동사 연습 문제

일반적으로 연세대의 3자 비교문제의 3자 가운데 패거리 제시문끼리는 동사를 공유한다. 다음 두 제시문의 공통된 동사(V)를 SVO기법을 이용하여 2개 이상 찾아라.

예제 1 : 2016학년도 인문계열

<문제 1> 예술적 성취에 대한 제시문 (가), (나), (다)의 논지를 비교, 분석하시오. (1,000자 안팎, 50점)

제시문 (가)

운이 열 한 살이 되던 때였다. 처음으로 학교라는 곳에 갔다가 시들해서 돌아온 운을 보고 허 노인은 이렇게 혼자 중얼거렸다. “세상에는 줄광대가 밟을 반분 땅이 흔찮은 게 당연하지.”

그러고는 운에게 줄타기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땅바닥에 직선을 그어 놓고 그 선에서 발이 벗어나지 않게 왕래하는 것부터 시작했다. 그 다음에는 각목이었다. 발바닥 절반만 한 넓이의 각목을 땅에 깔아 놓고 손을 뒤로 모아 잡은 다음 몸을 꼳꼳이 하여 그 위를 왕래하는 훈련이었다. 처음에는 천천히, 그리고 나중에는 빨리, 그런 다음엔 다시 천천히, 그 훈련이 아주 익숙하게 되었을 때 운은 눈을 싸매고 그때까지의 과정을 한번 더 되풀이했다. 다음에는 그 각목이 줄로 바뀌고, 그 줄이 드디어 공중으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꼬박 5년의 세월이 걸렸다. 운은 열 여섯 살이 되었다. 그때 그는 이미 언뜻 보건대 허 노인과 다름없이 줄을 탔다.

그러나 허 노인은 운을 사람들 앞에서 줄 위로 오르게 하려는 눈치가 전혀 안 보였다. 하지만 그 허 노인에게 선불리 이야기를 꺼낼 수 없었다. 운은 허 노인을 무서워했다. 허 노인은 운을 때리지는 않았지만, 시간이 나면 언제나 뒷마당에서 희초리를 들고 운의 줄타기 연습만을 계속했다.

참다 못한 운이 어느 날 아버지 허 노인에게 속마음을 폈다. “아버지, 저도 이제 사람들 앞에서 줄을 타고 싶습니다.” 그때 허 노인은 얼굴색이 조금 변했으나 온화하게 말했다. “그래, 그 줄을 탈 때 줄이 가까워 보이느냐?” “네, 바로 눈 앞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가는 줄이 넓어 보이겠구나.” “그 위에서 뛰어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허 노인이 단호하게 말했다. “안 되겠다!”

운은 까닭을 몰랐으나 더 대꾸하지 못했다. 열여덟 살이 되었다. 운은 허 노인에게 다시 줄을 청을 했다. “어떠냐, 줄이 넓어 보이느냐?” “줄이 보이질 않습니다.” 운은 불안했으나 사실대로 말했다. “그래, 줄을 타고 있을 때 아무 것도 보이질 않았단 말이냐?” “예.” “귀도 들리지 않고?” “예”. 그것도 사실대로 말했다. “아직도 객기가 있어.”

허 노인은 턱으로 줄을 가리켰다. 운은 또 아무 대꾸도 못하고 줄로 올라갔다.

제시문 (다)

어린 모차르트는 그의 경쟁자인 누나를 흉내내어 건반을 두드리면서, 아버지의 사랑과 관심에서 자기 몫을 얻으려 했을 수 있다. 아버지의 스피넷의 소리에, 그 다음에는 바이올린 연주에 즐거우리만치 일찍 관심을 보이는 아들에게, 이전까지는 누나에게만 기울이는 것처럼 보였던 사랑과 관심을 규칙적인 음악 수업의 형태로 확장했다. 아들이 아버지의 기대를 훨씬 넘어서는 속도와 범위로 음악적 학습 자료를 습득하면서 그를 교육하는 아버지의 수고에 보답하자, 자식에 대한 그의 애정은 한층 커졌을 것이다. 아버지의 커진 관심은 좀 더 큰 성과를 내도록 아이를 격려한다. 아버지를 놀라게 하고 감격시킨 것은 아이의 기이한 이해력이었다. 아버지의 ??? 발달에, 스스로를 의식하지 못한 채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어린 모차르트의 특수한 음감과 음 기억력, 그리고 음악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진정 하나의 기적처럼 보였다. 그가 세 살 때부터 시작한 체계적 수업은 이런 인상을 더욱 강화시켰다. 그것은 아버지가 직접 편찬한 악보에 따라 규칙적으로 연습?? 입력된 수업이었다.

풍요로운 자극으로부터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기회는 당사자가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면 사라져버릴 수도 있다. 이 점에서 분명 모차르트는 분명 최고의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 음악과의 이른 만남과 꾸준한 접촉, 오랜 기간에 걸친 아버지의 열렬한 교육, 신동으로써 많은 자극을 받을 수 있었지만 동시에 많은 노력을 요했던 이력들이 재정적인 안정, 신분상승의 기회, 도사리고 있는 몰락의 위협에 대한 가족의 힘겨운 생존투쟁과 결합했다. 이 모든 것은 그의 개인적인 발달이 다른 모든 사람들 보다 일찍 특정한 방향을 취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아버지로 처음에는 의식하지 않은 채, 그 후 점점 더 의도적으로 아이의 동기와 기이한 흐름을 이런 노선으로 음악을 다루는 일로 유도했다. 그가 아들에게 했던 심화교육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 중심에는 음악, 그리고 명연주가 되기 위한 훈련이 있었다. ?? 모두가 음악가가 그 이후에도 감내해야 했던 음악가?? 직업 활동의 그의 발달과 동일한 방향으로 몰고 갔다. 이런 방향이 음악적 전문화의 길에 계속해서 박차를 가했음을 분명하다. 고된 훈련은 어린 모차르트에게 일상적 즐거움을 앗아갔지만, 동시에 강한 쾌락과 성취감을 가져다 주었다.

연습문제 정답

1. 모차르트와 운을 주어로 설정할 경우 : 연습
2. 허 노인과 모차르트의 아버지를 주어로 설정할 경우 : 가르치다(수업)

예제 2 : 2011학년도 인문계열

제시문 (가)

인간은 생명체로서의 본능이 약화된 존재이므로 동물계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모든 종과 대조해 볼 때 부인할 수 없는 특수성을 갖고 있다. 동물 집단과 그 집단 내 의사소통, 연대성, 공격성에 대해 아무리 연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특수성이 덜해지는 것은 아니다. 인간의 이러한 특수성이란 이 세상에서 자신의 고유한 삶을 넘어서서 생각하거나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인간의 타고난 능력이다.

이런 이유로 인해 죽은 자들을 매장하는 것은 인간됨의 근본 현상이 된다. 매장은 죽은 자를 신속하게 숨기는 것이 아니다. 또 그것은 무겁고 영원한 잠에 빠져 꼼짝하지 못하는 자에게서 받은 충격적인 인상을 재빨리 지우는 것도 아니다. 그 반대로

인간은 상당한 노동과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죽은 자와 함께 머무르고자 하며 죽은 자를 산 자 가운데 꼭 붙잡아 놓고자 한다. 우리는 고대의 무덤들에서 발견되는, 죽음을 애도하는 여러 형태의 유물들을 보면서 그 풍요로움에 놀란다. 이런 유물들은 인간 존재를 영구히 보존하는 방식이다. 그것들은 죽음이 끝이 아님을 보여준다. 우리는 그것의 가장 근원적인 의미를 파악해야 한다. 이는 종교적인 사안도 아니고 종교를 세속적인 관습이나 도덕으로 전이시키는 문제도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인간됨을 이루는 근본이며 그것에서 인간 실천의 특수한 의미가 파생된다. 우리가 여기서 다루는 것은 자연 질서의 궤도에서 벗어난 생활양식이다. 가령 새들에서 관찰할 수 있는 삶의 본능도 놀랍지만 그 새들이 같은 종에 속하는 새들의 죽음에 대해 기피하거나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행태는 더욱 놀라운 것이다. 이러한 대비는 인간이 생존에 대한 자연적인 삶의 본능을 어떻게 거스르기 시작했는지를 잘 설명해 준다.

제시문 (다)

데모크리토스에 따르면, 사람들이 부패를 피하는 것은 부패하는 것들의 악취와 추악한 모습과 관련이 있다. 왜냐하면 건강과 아름다움을 갖춘 사람들이라도 죽으면 그런 상태로 전락해 버리기 때문이다. …… [중략] …… 밀론처럼 아름다운 모습을 갖고 있었다 해도 죽으면 얼마 안 가서 해골이 되고 결국에는 최초의 자연으로 해체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사체를 묘지로 보내는 것이다. 건강하지 않은 안색이나 아름답지 못한 모습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도 이는 마찬가지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자신이 들어갈 곳이 장차 보는 이들의 감탄을 자아낼 만한 호사스러운 묘가 아니라 간소해서 볼품없는 묘라는 것을 예측하고 비탄에 빠지는 것은 지극히 우매한 일이다. …… [중략] ……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생각 자체를 기피하는 것은 삶에 대한 애착 때문이다. 이 애착은 삶의 즐거움이 아니라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죽음의 모습이 눈앞에 선명하게 보일 때, 죽음은 사람들에게 느닷없이 다가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유언을 써놓는 것조차도 두려워하며 죽음에 사로잡히게 되고, 데모크리토스에 따르면 “곶빼기 식사를 꾸역꾸역 집어넣을 수밖에 없게 된다.”

연습문제 정답

1. 생각하다
2. 매장하다